

비르지니가 떠날 때만 해도 키가 그 아이의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자라더니 2년 뒤에는 높이가 20 피에에 달했고, 꼭대기에는 잘 익은 열매가 열을 지어 몸통 줄기를 감싸고 있었다네. 풀은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지난날 여자 친구가 심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이토록 커다란 나무가 자라난 것을 보고 마음속 가득 기쁨이 차올랐으나, 그 모습이 동시에 그녀의 오랜 부재를 표시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네. 우리가 늘 보는 사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빠른 속도를 인식하게 해주지 못하네. 그린 것들은 우리와 함께 늙어가는 법이지만, 그 노화의 진행이란 느끼기조차 어려워. 허나 몇 년 동안 시야에서 놓쳤다가 갑자기 다시 보게 되는 그린 사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속도를 우리에게 경고해준다네. 풀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이 커다란 파파야나무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또한 당혹스럽기도 했어.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고국을 떠났다가 돌아와,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자들일랑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떠나면서 겨우 어미젖을 물렸을 뿐인 자식들이 벌써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놀라 당혹스러워하는 여행자와 다르지 않았네. 풀은 때로 이 나무만 보면 비르지니가 떠난 이후 더디게 흘러가버린 시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버리는 바람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기도 했고, 또 때로는 비르지니의 덕행을 상